

# Y2K문제 대응 결과와 그 성과

서광현/정보통신부 Y2K상황실 서기관

## 2000년 연도전환기 Y2K문제 대응 상황

1999년 12월 31일 밤 11시 55분부터, 종로와 광화문 일대에서 수십만의 인파가 운집한 가운데 새천년 맞이 행사가 펼쳐지고 있던 한편, 같은 지역 광화문 정보통신부 15층에 설치된 Y2K정부종합상황실에서는 지난 수년에 걸쳐, 그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온 Y2K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 각 부처 및 공공과 민간의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수십명의 상황근무요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2000년 1월 1일 0시 직후, 정부종합상황실에서는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 전국 600여 개의 주요기관을 인터넷으로 연결한 상황관리시스템과 각 부처와 전용회선으로 연결된 직통전화를 이용하여 사회주요서비스의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 0시 11분, 철도청으로부터 전국 철도가 정상적으로 운행중이라는 첫 보고 접수. ▶ 0시 26분, 건설교통부로부터 항공, 지하철, 육상교통분야의 이상없음이 확인. ▶ 곧 이어 과학기술부로부터 전국 원전 16기 모두 정상운영중이라는 보고 접수.

▶ 0시 48분에는 전국 교통신호체계를 관장하는 경찰청으로부터, ▶ 1시 01분에는 제약업분야를 관장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 1시 12분에는 육 해 공 삼군의 주요무기체계와 국방정보시스템분야를 관장하는 국방부로부터, ▶ 1시 13분에는 전국 항만과 선박분야의 Y2K문제 해결을 관장했던 해양수산부로부터, ▶ 1시 20분에는 병 의원분야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모든 시스템이 정상 운영 중

이라는 보고 접수. 그리고 계속 하여 ▶ 환경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으로부터 환경분야, 수자원분야, 행정분야, 전력 가스분야, 통신 분야의 문제 없음이 확인되었다.

2000년 1월 4일 16시, 정보통신부장관은 전력, 통신, 금융, 운송 등 사회기간분야의 Y2K문제가 성공적으로 극복되어 주요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대내외에 선언하고 작년 12월 30일부터 계속된 전국주요기관의 24시간 비상근무를 해제하였다.

그때까지 공식적으로 16건의 문제발생이 집계되었고, 42건의 유사사태가 접수되었다. 평촌 및 일산에 위치한 아파트단지에서의 온수공급중단사고를 제외하면, (1)MS-DOS를 운영체제로 사용하는 (2)486급 이하의 PC에서 (3)영세개발업체가 제작 배포한 영업용 고객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4)비디오대여점, 문구점, 약국, 슈퍼, 부동산중개업소 등 소규모점포에서 주로 Y2K문제가 발생하였다.

## Y2K문제는 명백히 현존하였던 문제

Y2K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지금, 애초부터 이 문제가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시각이나, 미국 정보산업체의 고도의 마케팅전략이었다는 의견이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Y2K문제는 명백하게 현존했던 문제이다. 정보시스템을 생산공정, 기업회계, 요금계산, 고객지원 등 조직활동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활용하였던 많은 기업에서 실제로 수많은 소스 코드를 수정하였고, 문제가 심각한 다수의 프로그램을 폐기하였다.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 공기업체, 삼성, 현대, 대한항공 등 대기업 그리고 국민은행, 한미은행 등 금융기관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거의 모든 기관 기업에서 크던 작던 Y2K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정부가 정한 문제인식 → 영향평가 → 변환 → 시험운영 등의 단계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였다.

오히려 Y2K문제는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문제로서 문제발생원인이 다양하고, 영향범위가 광범위하여 합리적인 해결 관리가 힘든 과제였다. 또한 문제해결 전과정에서의 불확실성 때문에 일반국민의 심리적 불안에서 비롯된 물품사재기, 현금인출 등 과도한 반응이 우려되었고 실제로 지난 연말에는 정부의 차분한 대응 당부에도 불구하고 라면, 부탄가스 등이 품귀현상을 빚기도 하였다.

Y2K문제는 정보화가 진전되어 사회기간분야의 정보기술(IT) 의존도가 심화될수록 더욱 많은 문제를 파생한다. 미국, EU, 유럽 등 선진국일수록 문제발생 가능성이 더 높았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미국의 와튼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를 Y2K문제에 대해 고위험(高危險)국이자 고대비(高對備)국이라고 분류를 하였다.

특히 IMF 구제금융시기를 막 벗어난 우리나라에서 Y2K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회복국면에 접어든 국가신인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었기 때문에, Y2K문제는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었고 민 관의 공동노력에 의한 해결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었다.

## Y2K문제의 성공적 해결을 위한 민·관 및 국제 협력

우리 정부는 민간부문과의 공동노력을 통하여 지난 3년간 총 1조 1천억원을 투입하여 전력/에너지, 통신, 운송, 해운항만, 금융, 수자원 등 13대 중점분야 5,371개 기관의 Y2K문제 해결을 완료하였고 국민 생활과 국가경제에 큰 위해없이 성공적으로 Y2K문제를 극복하였다.

Y2K문제 해결의 어려움은 해결방법과 관련된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프로젝트 관리에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했다.

정부는 국가사회전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Y2K 관계장관회의]와 [Y2K 대책협의회]를 운영하였고 Y2K문제발생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3대 중점분야]의 문제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기본 방침을 정하였다. 또한 국가사회전반의 문제해결 추진실태를 관리하고 부진분야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부에 [Y2K 상황실]을 설치하여, 분야별 추진 현황을 매월 평가하고 미진분야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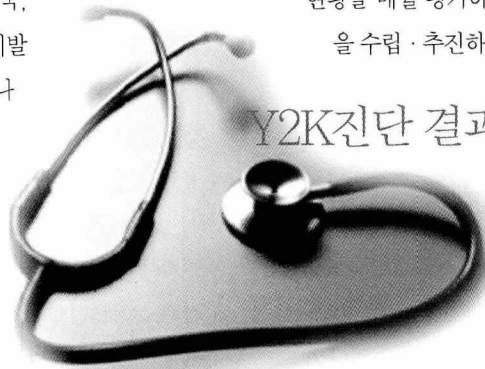
## Y2K진단 결과

그리고 효과적인 추진상황 관리를 위하여 각급기관이 Y2K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 대응기한]을 설정하고,

[문제해결지침]을 작성·배

포(1998.7)하였으며, 추진진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국무회의 또는 [Y2K 관계장관회의]에 보고(1999.1, 1999.3, 1999.9, 1999.12)함으로써 각부처 장관이 소관분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민간부문의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 향



만, 가스 등 분야별 세미나를 통해 문제해결정보를 공유하였고, 총 750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650개 금융기관, 1,500개 의료기관, 20,000여 중소기업에 대해 현장점검 및 기술자문을 실시(1998~1999)하였다.

또한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Y2K 문제해결비용을 용자지원하였다(1998년 232억원, 1999년 300억원). 특히 1999년 7월에는 [Y2K 문제해결 자체선언제도]를 도입하여 각급 기관과 기업이 Y2K 문제해결을 스스로 선언함으로써 문제해결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고 국민 및 관련 소비자 등의 Y2K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상장법인의 Y2K문제 대응상황을 공시도록 의무화(1998.7)하였고, 금융기관의 여신심사시 기업의 Y2K문제 대응상황을 반영(1998.12)토록 하였고, 공공기관은 Y2K문제가 해결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의무화(1998.7)하였으며, Y2K 문제해결을 위한 외부용역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실시(1999.1)하여 민간부문이 Y2K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다.

Y2K문제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와 합리적 대응을 안내하기 위해 금년 5월에 [Y2K캠페인주간] 행사를 실시하였고, 10월부터는 TV, 라디오,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캠페인을 전개하였다. 특히 Y2K 문제발생에 대비하여 일반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Y2K 국민대처요령]을 관련부처 및 시민단체 등과 협의·확정하여 국무회의에 보고(11.2)하고, TV, 라디오, 지하철, 인터넷, 반상회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였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PC의 Y2K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5대 PC제조회사에 협조를 요청하여 보정프로그램을 무상 공급토록 조치(1999.5)하였고, 모든 PC사용자가 가정과 직장에서 PC의 Y2K문제와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스스로 확

인하는 [전국 PC점검의 날](1999.5.25)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Y2K대응안내문](300만부)을 전국에 배포하고, [PC 점검 및 문제해결요령]과 [컴퓨터 바이러스와 해킹예방요령]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였다.

Y2K문제는 일국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각국간 정보시스템의 연계가 긴밀해진 현대 정보사회에 있어서는 최악의 경우 Y2K문제로 인한 여파가 국경을 넘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Y2K문제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은 중요했다.

정부는 APEC 정상회의, 한·일, 한·미 정상회담 등의 성과를 토대로 실무차원의 다양한 협력방안을 추진하였다.

[UN Y2K National Coordinators' Meeting](1998.12, 1999.6), [UN Y2K 협력센터 설립위원회](1999.2, 뉴욕), [APEC Y2K 심포지움](1999.4, 싱가포르), [한·미 Y2K Planning Summit](1999.6, 서울), APEC Y2K 워크숍(1999.8.31~9.2, 태국 방콕), 제 11차 APEC 각료회의(1999.9.9~10, 뉴질랜드 오클랜드) 등에 참가하여 우리 나라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였다. 정부는 최종적으로 1999.12.30일부터 2000.1.4일까지를 [Y2K 비상대응기간]으로 정하고 Y2K 정부종합 상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였다.

우선 중점분야의 문제해결을 완료한 후 1999.12.9일부터 11일까지 574개 기관이 참여한 제1차 모의훈련을 실시하였고 1999.12.28일에는 총 746개기관이 참여하여 제2차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문제해결의 타당성과 상황관리체계의 적정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만일의 문제발생에 대비하여 Y2K 정부종합상황실, 각 부처 및 주요기관의 비상대책반 등에서 총 37만여명이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하여 국가전반의 문제발생상황을 관리 지원하였다.

연도전환기 Y2K문제 비상대응에서 특히 성과를 거둔 것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주도하여 민간 정보통신기업과 개인전문가들의 자원봉사를 토대로

1035명 규모로 구성되어 서울을 비롯,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5개 지역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문제 발생 신고시 즉각적인 현장 출동 지원을 수행한 [Y2K 119 기술지원단] 활동이었는데, 이는 국가적인 위기대응을 위하여 민간의 전문기술인들이 자발적인 봉사에 나선 것으로 국제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으며, 우리 나라 정보통신산업계의 저력과 긍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크나큰 계기가 되었다.

### Y2K문제가 남긴 성과와 교훈

Y2K문제 해결경험은 정부나 민간기업에 많은 소중한 성과들을 남겨주었다. 우선, 국가사회전반에서 다양하게 구축되어온 정보화 기반과 정보자원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Y2K문제 해결과정의 필수단계인 목록조사, 영향분석단계 등에서 개별기관이 보유한 정보자원이 포괄적으로 파악되었고, 분석되었다.

이 과정에서 산출된 자료들은 향후 정보자원관리(IRM: Infomation Resource Management)차원에서 귀중하게 활용될 것이다.

둘째로, Y2K문제 해결과정은 정보기술이 보편화되는 디지털사회의 진입을 위한 국민의식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Y2K문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실제로 많은 가정과 직장 에서 국민 각자가 사용중인 PC의 Y2K문제를 한번 씩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Y2K문제를 위장한 컴퓨터바이러스에 대한 경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정보화 사회의 취약성에 대한 환기와 정보보호의식의 제고가 이루어졌다.

셋째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재점검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Y2K문제는 현대산업사회의 전형적인 재해, 재난과는 특성이 다른 정보화사회의 새로운 사회위기형태의 일단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한 대응도 우리 나라에서 유례가 없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국가사회운영의 핵심(Core)이 13개 기능별로 분류가 되고, 정보통신부의 총괄책임 하에 각 주무부처가 역할을 분담하는 범정부적인 대응체계가 마련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13대 분야의 총 5371개 주요 공사 기업이 모두 문제해결과정의 주체로 참여하였다.

그 밖에도 정부는 Y2K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정보통신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정부와 기업의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하는 성과를 나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 협회동정

### 정보통신산업관련 분석보고서 3종 발간

협회는 지난 1월 정보통신서비스 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정보통신기기산업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각각 발간했다. 이들 보고서는 정보통신산업의 구조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 모든 정보통신산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미 발간된 99정보통신산업 통계연보를 바탕으로한 분석 결과를 종합 수록한 것이다. 정보통신산업을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산업으로 구분해서 이를 여러관점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한 이들 보고서들은 국가 정보통신산업 정책수립과 기업경영 및 각종 연구 활동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 자료문의: 조사통계팀 (T:580-0602)